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 12. 7

홍보팀(3441-0835)

담당부서	건설정책연구실	연구책임자	이홍일 연구위원	전화번호	3441-0611
------	---------	-------	----------	------	-----------

제 목: 2007년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건설업 체감경기 4개월 연속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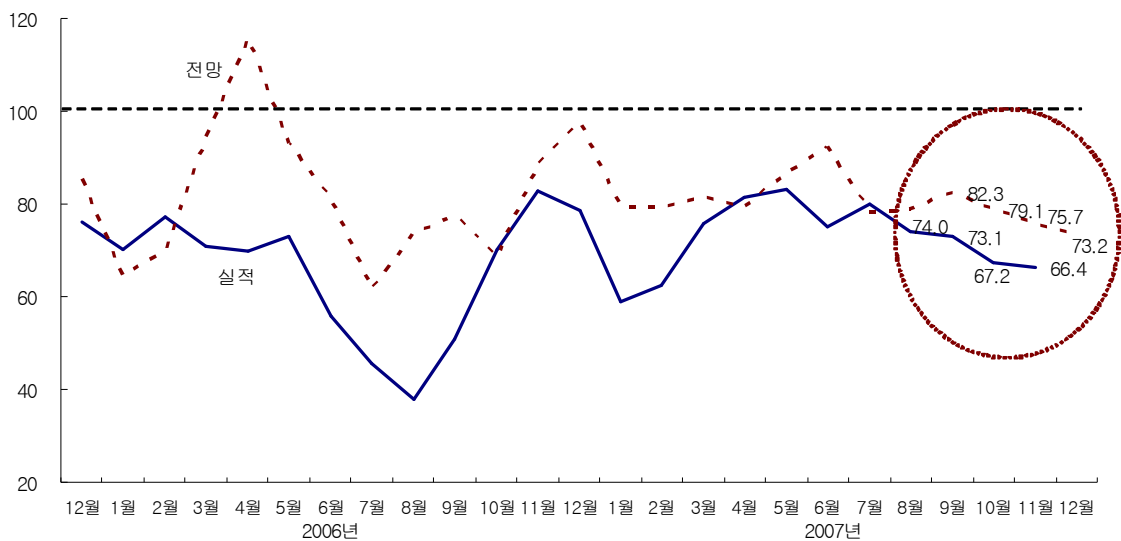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소폭(0.8p) 하락한 66.4를 기록함으로써 8월 이후 4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함.
 - 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지난 2004년 5~8월 4개월 동안 지수가 38.0p 하락한 이후 처음임.
 - 올 8~11월의 지수 하락폭(13.7p)과 11월 지수 하락폭은 크지 않지만 9~11월에는 통상 계절적 요인에 의한 지수 상승이 많았음을 감안할 때 최근 체감경기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이로써 지수는 1.11대책 발표로 지수가 급락했던 1월 이후 통계적 반등이 시작된 2월 수준(62.3)에 근접함.
 - 업체 규모별은 대형업체가 전월대비 7.8p 하락한 70.0, 중견업체가 0.3p 하락한 73.1, 중소기업체는 6.8p 상승한 54.7을 기록함.
 - 중소기업체 지수는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직 50대에 머물러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여전히 매우 심각한 수준임.
- 공사물량지수 역시 전월대비 소폭(0.4p) 하락한 79.5을 기록한 가운데, 주택물량지수가 8~10월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침체됨.
 - 공종별 물량지수를 살펴보면, 토목 79.1, 주택 63.8, 비주택 67.8을 기록해 지난 8~10월과 마찬가지로 주택물량에 대해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침체수준이 가장 심각함.
 - 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형업체 90.0, 중견업체 84.6, 중소기업체 61.3을 기록해 공사물량지수의 업체 격차는 전월에 비해 소폭 개선됨.
- 인력 및 자재수급지수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지수가 더욱 악화됐으며, 자금조달지수도 8월 이후 상황이 계속 좋지 않음.
 - 인력과 자재수급지수는 각각 99.9, 94.6을 기록하여 양호한 가운데, 인건비지수도 86.5로 비교적 양호하나, 자재비지수가 57.5를 기록하여 3월 이후 나빠지기 시작한 자재비 상황이 11월 들어 더욱 악화됨.
 -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지수가 각각 83.1, 78.2를 기록해 자금조달 상황이 좀 더 악화됨.

2007년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전월대비 소폭(0.8p) 하락한 66.4 기록, 8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

- 2007년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66.4를 기록함.
 - 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소폭(0.8p) 하락하여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침체의 수준은 전월대비 좀 더 악화됨.
 - 이로써 지난 8월 계절적 요인과 주택물량 침체의 영향으로 지수가 전월대비 6.1p 하락한 이후, 4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함.
 - 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지난 2004년 5~8월 지수가 38.0p 하락한 이후 처음임.
 - 올 8~11월의 지수 하락폭(13.7p)과 11월 지수 하락폭은 크지 않지만 9~11월에는 통상 계절적 요인에 의해 지수가 상승함을 감안할 때 최근 체감경기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이로써 지수는 1.11대책 발표로 지수가 급락했던 1월 이후 통계적 반등이 시작한 2월 수준(62.3)에 근접함.

< 경기종합 BSI 추이 >



-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업체가 전월대비 7.8p 하락한 70.0, 중견업체가 0.3p 하락한 73.1, 중소기업체는 6.8p 상승한 54.7을 기록하여 체감경기 양극화 수준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대형업체가 지수 하락을 주도함.
 - 대형 건설업체는 경기실사지수가 전월대비 7.8p 하락한 70.0을 기록하여 전체 경기실사지수 하락을 주도함.
 - 중견업체는 경기실사지수가 전월대비 0.3p 하락한 73.1을 기록함.
 - 반면, 중소기업체는 경기실사지수가 전월대비 6.8p 상승한 54.7을 기록해 체감경기 양극화 수준이 다소 완화됨.
 - 그러나 중소기업 지수는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직 50선에 머물러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여전히 매우 심각한 수준임.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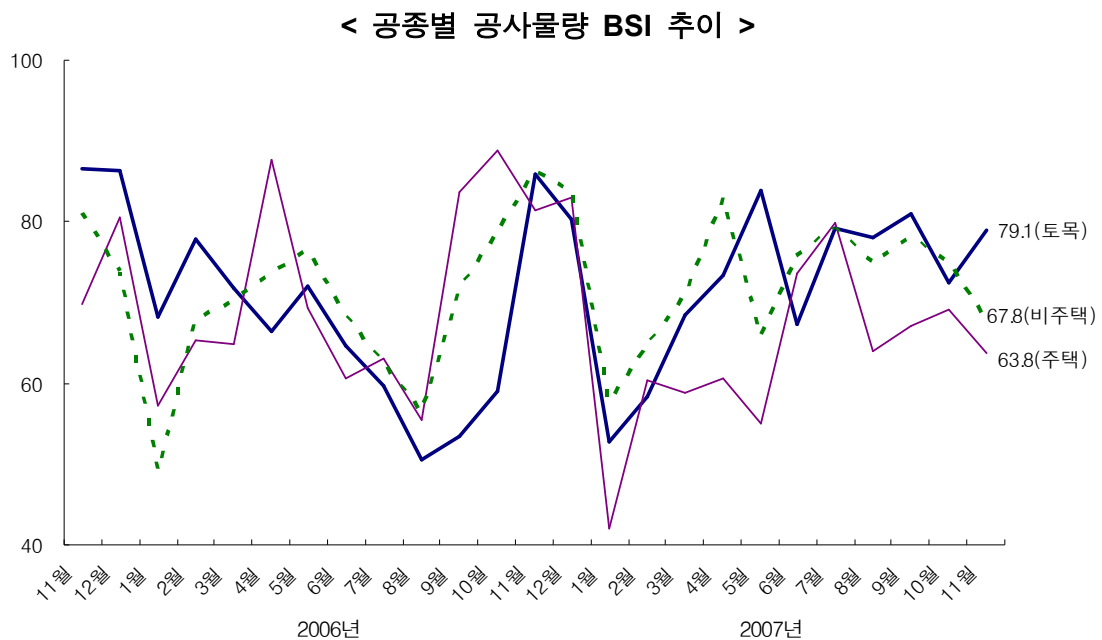
구 분		200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1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58.9	62.3	75.8	81.3	83.2	75.1	80.1	74.0	73.1	67.2	66.4	75.7	73.2
규모 별	대형	70.0	81.8	84.6	91.7	92.3	83.3	100.0	91.7	100.0	77.8	70.0	88.9	80.0
	중견	57.7	56.0	82.1	86.7	90.6	76.7	81.3	76.9	64.0	73.3	73.1	73.3	84.6
	중소	47.4	46.7	58.1	63.0	64.0	63.6	55.4	50.0	52.0	47.9	54.7	62.9	52.4
지역 별	서울	67.4	72.0	89.4	89.4	94.8	87.9	92.9	85.1	88.5	76.6	75.8	81.8	83.8
	지방	42.6	45.9	52.8	71.3	66.7	57.9	60.1	56.3	48.5	50.5	51.9	65.5	56.9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75.8, 지방업체가 51.9를 기록함.
 - 서울업체의 지수는 전월대비 0.9p 하락하여 경기실사지수 하락을 주도함.
 - 지방업체 지수는 전월대비 1.4p 상승한 51.9를 기록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전월대비 소폭 개선됐으나, 지수 자체는 50대 초반에 불과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여전히 심각함.
- 2007년 12월 건설경기 전망 지수는 73.2를 기록함.
 - 업체 규모별로 세부적인 건설경기 전망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건설업체는 80.0, 중견업체는 84.6으로 전망했으며, 중소기업체는 52.4로 전

망함.

공사물량지수 전월대비 소폭(0.4p) 하락한 79.5 기록,
전월에 이어 주택물량지수 상대적으로 가장 침체

- 2007년 11월 공사물량지수는 79.5를 기록함.
 - 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0.4p 하락하여 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전월대비 공사물량의 침체 수준은 소폭 악화됨.



- 공종별로 보면 토목 79.1, 주택 63.8, 비주택 67.8을 기록해 지난 8~10월과 마찬가지로 주택물량에 대해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침체수준이 가장 심각함.
 - 토목물량지수가 전월대비 6.6p 상승한 79.1을 기록해 전월에 비해 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물량침체 수준이 일부 개선됨.
 - 그러나 주택 및 비주택물량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5.4p, 7.2p씩 하락

한 63.8, 67.8을 기록해 전월에 비해 물량침체수준이 좀 더 악화됨.

- 주택물량지수가 타 공종에 비해 가장 낮은 63.8을 기록해 지난 8~10월과 마찬가지로 주택물량에 대해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침체수준이 가장 심각함.

- 업체 규모별 공사물량지수는 대형업체 90.0, 중견업체 84.6, 중소기업체 61.3을 기록해 공사물량지수의 업체 규모별 양극화가 소폭 개선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79.5	90.0	84.6	61.3	89.7	62.5
	전망	83.0	100.0	88.0	57.4	90.6	70.9
토목	실적	79.1	90.0	79.2	66.1	85.6	68.8
	전망	78.6	90.0	82.6	60.7	81.1	74.7
주택	실적	63.8	90.0	53.8	44.4	75.9	44.1
	전망	70.1	90.0	72.0	44.4	77.2	59.3
비주택	실적	67.8	80.0	80.8	38.6	78.3	50.9
	전망	72.9	110.0	62.5	41.4	89.0	47.9

주 : 실적은 2007년 1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7년 12월 예측지수임.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전월보다 1.7p 하락한 89.7을 기록했고, 지방업체는 전월대비 2.8p 상승한 62.5를 기록하여 지역별 공사물량지수 양극화 현상이 소폭 개선은 됐으나, 서울과 지방업체간 물량지수의 양극화 수준은 아직 여전히 심각함.
- 2007년 12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83.0을 기록하여 11월보다는 전월대비 공사물량 침체의 수준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인력 및 자재수급지수 양호, 자재비지수 더욱 악화,
자금조달지수 8월 이후 계속 나쁜 상황**

- 인력과 자재수급지수는 각각 99.9, 94.6을 기록하여 인력과 자재수급에는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지수도 86.5를 기록하여 인건비 상황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않으나, 자재비지수가 57.5를 기록하여 3월 이후 계속해 자재비 상황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급	실적	83.1	100.0	74.1	73.4	84.0	82.0
		전망	86.3	100.0	76.9	81.0	86.7	85.6
	자금조달	실적	78.2	80.0	85.2	68.3	79.8	75.9
		전망	81.0	90.0	76.9	75.0	83.8	76.5
인력	수급	실적	99.9	100.0	103.7	95.3	99.2	101.0
		전망	99.4	100.0	103.8	93.7	101.4	96.3
	인건비	실적	86.5	90.0	88.9	79.7	90.1	81.0
		전망	83.2	80.0	88.5	81.0	84.0	82.0
자재	수급	실적	94.6	110.0	85.2	87.3	99.6	86.9
		전망	94.8	110.0	88.5	84.1	101.5	84.4
	비용	실적	57.5	70.0	63.0	36.5	64.5	46.8
		전망	54.0	60.0	57.7	42.9	59.1	46.2

주 : 실적은 2007년 1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7년 12월 예측지수임.

- 공사대금수급지수는 전월대비 0.1p 상승한 83.1을 기록하여 계속해 건설업체들이 공사대금 수급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금조달지수는 전월대비 7.8p 하락한 78.2를 기록해 8월 이후 악화된 건설업체들의 자금조달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남.